
WiFi 주파수

추가 할당 움직임 및 시사점

2013.10.02

□ 배경

- ITU WRC-15는 모바일광대역(Mobile broadband) 구현을 위해 IMT 주파수 추가 지정과 더불어 차세대 WiFi용으로 주파수 할당을 검토 예정

□ 주요내용

- 구글은 뉴욕 맨하탄 더글러스빌에서 무료WiFi 서비스를 시작함
 - 포브스는 이를 구글이 네트워크 일상재화를 위해 무료 WiFi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
- 애플은 새로 발표한 IOS7의 새로운 기능으로 WiFi Hotspot20 기술을 도입한 Passpoint 기능을 탑재하는 등 WiFi정책을 강화
 - ※ WiFi Hotspot 2.0: 사용자의 개입 없이 디바이스가 WiFi 망과 셀룰러 망 간 자율 인증을 통해 seamless handoff를 제공하는 기술
 - ※ Passpoint: WiFi Alliance에서 시행중인 Hotspot 2.0 기능 인증 프로그램 명
- 미국, 스웨덴 등은 2013. 5월 ITU-R WP5A회의에 5350~5470MHz, 5725~5850MHz를 RLAN용으로 제안함. 상기 주파수들은 WRC-15 후보주파수 대역임
 - ※ 기 할당대역(Res229): 5150~5250MHz, 5250~5350MHz, 5470~5725MHz(455MHz)
 - ※ 미국은 5GHz 대역에서 195MHz 폭을 추가 할당하여 총 750MHz 폭(5150~5825MHz, 5850~5925MHz)을 무선랜 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, 이 중 ITU에서 미 지정된 대역의 추가 분배를 제안
- IEEE는 IEEE802.11ac 표준을 2014년 2월 최종 제정 예정
 - ※ 본 표준은 5GHz대역에서 최대 대역폭(160MHz)에서 이론적으로 6933.3Mbps data rates 제공

□ 향후전망

- 구글, 애플 등은 Telco의 영향력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WiFi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동조하여 미국은 WRC-15에서 추가 주파수 대역이 할당을 추진
- LTE Off-Loading 및 보완 수단으로 WiFi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

▷ 본 자료의 게시처 : TTA 홈페이지 > 자료마당 > TTA간행물 > 해외표준화기구동향